지식경제부	보도자료	"더 평화롭고 안전한 세계, 2012 서울 핵안보정상회의"
2012년 3월 14일(수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	
자료문의 : 지식서비스과 이상훈 과장(2110-4770), 지민정 사무관(2110-4772)		

이러닝 매출액 2조 4,513억, 전년대비 9.2% 성장

▸ 2011년 기준 만 3세 이상 국민 과반수가 이러닝 체험
▸ 100명중 18명은 모바일 기기로 학습한 경험 있어

□ 지식경제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「2011년 이러닝 산업실태조사」를 실시해 이러닝 업계 현황 및 이러닝 활용률 등을 파악하였으며, 특히 '11년에는 모바일 기기를 활용한 학습에 대한 조사를 추가하였음

□ **(공급측면)** '03년 이후 이러닝 사업자수와 매출액은 꾸준히 상승하고 있으나, 업계당 평균 매출 규모는 14.8억원으로 여전히 영세함

○ **(사업자수, 매출액)** 이러닝 사업자 수는 전년대비 6.9% 증가한 1,656개이며, 총 매출액은 전년대비 9.2% 증가한 2조 4,513억원임

- 진입 장벽이 낮은 시장 특성상 1억 미만의 소규모 사업자가 911개로 55.0%에 달하며, 이들이 총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.1%에 불과함

○ **(고용인력)** 이러닝산업 종사자 수는 전년대비 7.3% 증가한 25,182명임

□ **(수요측면)** '11년을 기점으로 국민 절반 이상이 이러닝을 체험하였고, 공공기관,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의 이러닝 활용은 저조한 편임

○ **(개인)** 만 3세 이상 국민의 52.8%가 이러닝 경험이 있으며, 모바일 러닝 경험 비율은 100명중 18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

○ **(기업)** 300인 이상 사업체의 이러닝 도입률은 63.0%인 반면, 300인 미만의 사업체는 4.1%에 불과함

○ **(기관)** 정규 교육기관은 도입률이 82.3%, 정부·공공기관은 78.9%임

□ **(정책방향)** 지식경제부는 건전한 이러닝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기초작업으로 올해 이러닝 사업자 신고제도*를 시행할 예정임

* '12.1.26 「이러닝 산업 발전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」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

○ 또한, 이러닝 콘텐츠를 보급·확산하고, 스마트러닝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「차세대스마트러닝산업지원센터」를 구축할 계획임

□ 지식경제부(장관 : 홍석우)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(원장 : 정경원)은 이러닝 업계 현황 및 이러닝 활용률 등을 파악하기 위해 「2011년 이러닝 산업실태조사」를 실시하였음

* 「이러닝(전자학습)산업 발전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17조에 근거

○ 동 조사는 '05년 이후 매년 실시해 왔으며, 특히 '11년에는 모바일 기기를 활용한 학습에 대한 조사항목을 추가한 것이 특징임

1. 이러닝 공급부문 현황

1 **(사업자수)** '11년 이러닝 사업자 수는 1,656개로 전년대비 107개 사업자가 증가하여 6.9%의 상승률을 기록함

○ 분야별로는 서비스사업자가 1,114개로 전체 67.3%를 차지하며, 콘텐츠 사업자가 368개로 22.2%, 솔루션사업자가 174개로 10.5% 차지

* 분야별 사업자수 증가율(전년대비) : (솔루션)7.4%, (콘텐츠)7.0%, (서비스)6.8%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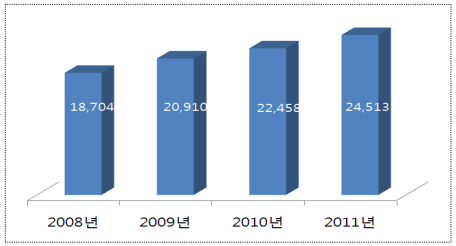
2 **(매출액)** '11년 이러닝 매출액은 2조 4,513억원으로 전년대비 9.2% 성장하였으며, 최초 집계된 '03년 이후 꾸준한 증가세를 보임

○ **(분야별)** 서비스사업자가 1조 6,778억원(68.4%)으로 총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크며, 콘텐츠사업자 5,383억원(22%), 솔루션 사업자 2,352억원(9.6%)순임

* 분야별 매출액 증가율(전년대비) : (서비스)10.9, (콘텐츠)5.8%, (솔루션)5.1%

○ **(사업자 규모별)** 매출액 100억원 이상 사업자(전체 사업자 수의 3.0%)의 매출규모가 49.4%를 차지하여, 상위업체의 매출편중이 심한 것으로 나타남

< 국내 이러닝 시장규모 (억원) >



< 부문별 시장규모 및 구성비 (억원, %) >

분야	규모	증감률 (전년比)	구성비
콘텐츠	5,383	5.8	22.0
솔루션	2,352	5.1	9.6
서비스	16,778	10.9	68.4
합계	24,513	9.2	100.0

3 **(종사자수)** 이러닝산업 종사자 수는 전년대비 7.3% 증가한 25,182명임

* 직무별 인력구성비 : (서비스운영자) 27.2%, (콘텐츠개발자) 23.1%, (시스템개발자) 20.7%, (내용전문가) 11.6%, (기획컨설턴트) 8.8%, (교수설계자) 5.8% 順

○ 전체 이러닝기업의 43.3%가 인력부족을 겪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, 이러닝산업 인력부족률은 4.5%로 나타나 체계적인 전문인력 양성과 재직자 역량강화가 시급한 것으로 분석됨

* 직무별 인력부족률[=부족인원/(부족인원+현원)×100] : (교수설계자)6.0%, (시스템개발자)5.2%, (기획컨설턴트)5.8%, (콘텐츠개발자)5.7% 등

** 직무별 부족인력수 : (콘텐츠개발자)351명, (시스템개발자)287명, (기획컨설턴트)136명, (서비스운영자)185명, (교수설계자)93명 등

4 **(분석)** 이러닝 매출액은 '04년부터 '06년까지 두자리수 성장률을 기록하며 빠르게 성장, '07년 이후 10% 내외로 성장하며 안정세를 유지함

* 연도별 매출액 증가율(전년대비, %) : ('04)20.6 → ('05)13.3 → ('06)10.0 → ('07)6.8 → ('08)8.3 → ('09)11.4 → ('10)7.4 → ('11)9.2

○ 한편, '11년 업계당 평균 매출 규모은 14.8억원으로 영세한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

2. 이러닝 수요부문 현황

1 **(개인이용률)** '11년 만 3세 이상 국민의 이러닝 이용률은 52.8%로, 남성의 이용률(53.8%)이 여성(52.5%)보다 근소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남

* 최근 3년간 이러닝 이용률 변화 : ('09)48.3% → ('10)49.0% → ('11)52.8%

○ **(연령별)** 10대 이용률이 74.5%로 가장 높은 가운데, 50대 이용률이 전년대비 3.8%p 증가하여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함

* 연령대별 이러닝 이용률 : (3~7세) 38.5%, (8~19세) 74.5%, (20대) 67.9%, (30대) 44.9%, (40대) 41.6%, (50대 이상) 25.9%

○ **(분야별)** 외국어 학습이 39.5%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고, 초·중·고 교과과정 등 학업연장(33.1%), 자격(20.7%), 직무(18.1%)순이며, 그 밖에 수학능력시험(9.2%), 기본소양(4.4%), 자격(20.7%) 분야의 이러닝 이용이 전년대비 크게 증가함

* 이러닝 이용 분야(중복응답) : (외국어) 39.5%, (초중고 교과과정) 33.1%, (금융·경영·마케팅 등 직무) 18.1%, (자격) 20.7%, (IT) 10.6% 등

○ **(모바일러닝)** 특히 금번 조사 결과 이러닝 이용자 100명중 18명은 스마트폰, 태블릿 PC 등 모바일 기기로 공부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, 다양한 콘텐츠 개발과 교육비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스마트 러닝이 빠르게 확산될 것으로 전망됨

* 연령별 이용률 순위: ①30대(30.0%), ②20대(20.7%), ③40대(15.1%), ④50대이상(14.1%)

* 모바일러닝 확산시 필요사항 : 콘텐츠 다양성(38.3%), 교육 보조금(32.7%), 디바이스 가격인하(19.3%), 모바일러닝 학점인정(8.4%) 등

2 **(사업체이용률)** 300인 이상 사업체의 이러닝 도입률은 전년대비 0.2%p 상승한 63.0%이나, 300인 미만 사업체는 4.1%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임

○ **(업종별)** 금융·보험업(29.4%), 통신업(23.9%)의 도입률은 높은 반면, 건설·운수, 예술·스포츠, 여가관련 서비스업의 도입률(1.2~2.5%)은 낮음

○ **(분야별)** 주로 직무(51.4%), 외국어(12.9%), 정보기술(7.9%)에 활용함

○ **(도입효과)** 교육장소·강사 확보 등 교육관련 관리부담 감소, 다양한 교육과정 제공, 직원들의 교육참여 활성화 등을 가장 큰 효과로 꼽았음

* 특히, 이러닝 도입 사업체의 26.4%가 교육 비용 절감효과가 있었다고 응답하였으며, 오프라인 교육 대비 약 20%의 비용이 절감된 것으로 나타남

3 **(기관이용률)** 정규교육기관 이러닝 도입률은 82.3%로 전년대비 0.9%p 증가하였으며, 정부공공기관의 도입률은 78.9%로 전년과 유사함

○ **(교육기관)** 인문계고와 이러닝 도입률이 가장 낮은 전문계고의 이러닝 도입이 가장 활발(전년대비 각각 4.5%p, 3.1%p 증가)하였음

* 정규 교육기관 이러닝 도입률 : (초등학교) 89.3%, (중학교) 79.9%, (인문계고) 73.6%, (전문계고) 58.2%, (전문대학) 66.2%, (4년제 대학교) 79.3%

- 이러닝 도입 학교는 전체 과목 중 약 37%의 과목에 이러닝 과정을 개설(학교 평균 10.3개 과정)하고 있었으며, 이러닝 과정의 58.6%를 오프라인 강의의 병행과정 또는 보조자료로 활용 중임

○ **(정부·공공기관)** 정부기관의 도입률은 거의 100%에 달하는 가운데, 기타공공기관은 전년대비 3.5%p 증가하여 이러닝 활용이 성숙단계에 진입한 것으로 보임

* 정부·공공기관 이러닝 도입률 : (중앙정부) 100%, (광역지자체) 100%, (기초 지자체) 87.8%, (공기업) 71.4%, (준정부기관) 85.0%, (기타 공공기관) 66.7%

4 **(분석)** '11년을 기점으로 국민 절반 이상이 이러닝을 경험하게 되었다는데 큰 의의가 있으며, 연령대는 10대, 활용분야는 외국어·교과가 주도하는 가운데 50대 이상, 소양·자격 분야가 높은 신장세를 보임

○ 상대적으로 중소기업의 이러닝 활용은 매우 저조*하며 그 성장세도 더딘 상황이었고, 모바일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이러닝 가능성이 통계적으로 확인되어 이 분야의 성장이 기대되고 있음

* 이러닝을 도입하지 않는 이유로 "필요성을 못 느낀다"는 응답이 62.9% 차지

3. 정책방향

□ '12.1.26일자로 지식경제부는 「이러닝(전자학습)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」을 시행하고, 동 법률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를 마련하고 있음

○ **(공급)** 금년에는 한국이러닝산업협회를 통해 이러닝 사업자 신고제도 시스템을 구축하여 신고 업무를 개시하고, 이러닝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생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나갈 예정임

○ **(수요)**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이러닝 도입 효과에 대한 홍보와 함께 교육 콘텐츠를 보급·확산하고, 스마트러닝 분야 신수요 창출을 위해 「차세대스마트러닝산업지원센터」를 구축해 기술개발 및 사업화 등을 지원할 계획임

< 참고 : 한 눈에 보는 이러닝 산업 주요 통계>

구 분	2010년	2011년
매출액	2조 2,458억원	2조 4,513억원
분야별 매출액	■(서비스) 15,129억원 ■(콘텐츠) 5,090억원 ■(솔루션) 2,239억원	■(서비스) 16,778억원 ■(콘텐츠) 5,383억원 ■(솔루션) 2,352억원
사업자수	1,549개	1,656개
종사자수	23,468명	25,182명
개인 이용률	49.0%	52.8%
성별 이용률	■(남성) 50.7% ■(여성) 47.1%	■(남성) 53.1% ■(여성) 52.5%
연령대별 이용률	■(3~7세) 38.1% ■(8~19세) 74.4% ■(20대) 66.0% ■(30대) 44.1% ■(40대) 41.2% ■(50대 이상) 22.1%	■(3~7세) 38.5%, ■(8~19세) 74.5% ■(20대) 67.9% ■(30대) 44.9% ■(40대) 41.6% ■(50대 이상) 25.9%
3대 이용분야	■외국어학습 (38.0%) ■교과과정 (27.9%) ■직무 (19.6%)	■외국어학습 (39.5%) ■교과과정 (33.1%) ■자격 (20.7%)
3대 이용매체	■인터넷 사이트 (72.2%) ■교육방송 (45.6%) ■CD 등 저장매체 (11.6%)	■인터넷 사이트 (65.5%) ■교육방송 (29.9%) ■CD 등 저장매체 (3.4%)
사업체 이용률	(300인 이상) 62.8% (300인 미만) 3.9%	(300인 이상) 63.0% (300인 미만) 4.1%
3대 이용분야	■ 직무 (90.5%) ■ 리더십 (68.4%) ■ 기본소양 (66.3%)	■ 직무 (51.4%) ■ 외국어 (12.9%) ■ 정보기술 (7.9%)
정규기관 이용률	81.4%	82.3%
초등학교	88.7%	89.3%
중학교	79.7%	79.9%
인문계고	69.1%	73.6%
전문계고	55.1%	58.2%
전문대학	63.4%	66.2%
4년제 대학교	79.1%	79.3%
정부공공기관 이용률	77.6%	78.9%
중앙정부	100%	100%
광역지자체	100%	100%
기초 지자체	86.7%	87.8%
공기업	71.4%	71.4%
준정부기관	88.9%	85.0%